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에 전폭적인 지지

전북 건설단체연합회,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 성명서 발표

전북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정대영)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를 건설분야 10개 단체 회장단, 사무처장 20여명과 함께 건의하는 성명서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 성명서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부분의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남부2축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등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SOC사업 신규 건설물량 확보와 지역건설 활성화 기여에 건설인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전 세계 육상, 해상, 항공 교통물류의 허브이자 글로벌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필수 인프라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요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영 전북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의 전북도회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이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항공 교통물류 확충을 통해 기업유치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로 최우선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절차상 이유로 연기되고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건설인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물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만금사업 촉진 '2023년 세계패미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전북도민과 건설인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가 지난 2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를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를 비롯,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하고 있고 회원수는 5천여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

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 '톡톡'

전북시제품제작소, 지자체 협업 통한 메이커 문화 확산 구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북시제품제작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메이커 활동과 소규모 창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전북시제품제작소'는 중소기업창업부에서 운영하는 총 5개의 시제품제작소중 유일하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도가 협업, 지역 제조업 창업기반 조성 위해 2015년 12월에 개소,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CNC머시닝센터 등 170여종의 첨단 장비는 물론, 6명의 기술전문가도 보유하고 있어 아이디어에서 디자인, 설계 등 시제품제작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전북청년메이커스 창작워크숍, 시제품제작 디자인 생김, 3D 프린터 셀프교육을 청소년, 청년, 중, 장년에게 실시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제작환경을 제공,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창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시제품제작을 포함하여 전문가서비스 837여건, 셀프제작서비스 1,078여건, 2018년은 전문가서비스 1,093여건, 셀프제작서비스는 1,330여건 등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127%의 큰 성과를 거둬 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3D 프린터, 레이저조각기 등 포함한 100여종을 구입, 그에 따른 리모델링 기간동안 도내 13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 '찾아가는 메이커 서비스'를 통해 메이커트럭 견학 924명, 메이커교육을 297명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북시제품제작소가 최근 개소 완료한 도내 메이커스페이스 3곳(전주, 익산, 남원)과 지자체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창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자경 주무관(063-210-641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우체국예금 이용 고객

황금돼지해 기념 이벤트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2019년 1월1일~3월31일까지 우체국 요구불예금 예치 고객을 대상, 경품이벤트를 펼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우체국 요구불예금 평균 1000만원이상 예치고객은 자중으로 경품 추천대상이 되며 1000만원 이상 예치시 1000만원 단위로 복수 응모기회가 부여된다.

추첨을 통해 총128명에게 1등 백화점상품권 100만원(1명), 2등 백화점상품권 50만원(2명), 3등 백화점상품권 30만원(5명), 장려상 우체국소핑 5만원상품권(20명), 행운상 우체국소핑 3만원상품권(100명)을 지급한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우체국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당첨자는 2019년 4월25일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고객은 우정청,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품혜택뿐만 아니라 우수고객으로 관리되어 예금, 적금 금리 추가제공,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된다.

한편,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예금용은 고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며 착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이 지난 28일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대아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8호' 오픈식을 가졌다.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전북은행, 군산시 대야면 'JB희망의 공부방 제78호' 오픈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은 지난 28일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대아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8호' 오픈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부방 오픈식에는 두형진 전북은행부행장, 김영민 군산지점장, 노시형 사회공헌부장, 이지태 (사)금호엔비텍대표, 황대성 군산시청어린이행복과 과장, 김관기 대야면사무소면장, 정동희 전북사

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 이순임 대아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아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개소, 지역 내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 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아지역아동센터는 오랜 기간 운영하여 환경을 개선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책상, 의자, 책장 등 새로운 가구들로 교체하고 여러 창문에 형형색색의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아늑하고 밝은 환경의 공부방을 조성했다.

김영민 전북은행군산지점장은 "지역아동센터의 방문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빅데이터 기반 '가계여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농협은행, 과학적인 진단지표 도출로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은행권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가계여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이하 NH-LDS, Loan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NH-LDS'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대출시장의 빅데이터를 결합, 가계여신 자산의 건전성, 성장성, 수익성 현황의 변동을 분석, 예측하여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구축으로 가계여신 시장진단, 가계여신 시장전망, 포트폴리오 진단,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포트폴리오 전망), 심사전략 진단에 이르는 5개 부분 의사결정에 따라 과학적인 진단지표를 도출,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의 가계대출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업대출의 것을 차용함에 따라 개별 고객별 위험 측정, 위험점이



추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고 금차에 개별 고객의 부도확률 예측모형을 개발해 이를 보완했다.

또한, 개별 고객 중에서도 고위험 차주군(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의 위험 상황 영향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졌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가계대출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NH-LDS'를 통해 리스크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나눔으로 행복 건설, 사랑으로 미래 건설”

CAK 대한건설협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창조적인
건설산업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단 및 제5대 대표회원 "														
회장 정대영	윤리위원	박병도	윤영위원	강신길	윤영위원	송영석	대표회원	강성희	대표회원	김영욱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권강준
직권회장 윤재호	윤리위원	김승희	윤영위원	고상범	윤영위원	이상문	대표회원	강지원	대표회원	김영우	대표회원	윤영남	대표회원	정영주
부회장 윤병섭	윤리위원	김양희	윤영위원	기호성	윤영위원	양신기	대표회원	고두영	대표회원	김용태	대표회원	윤진오	대표회원	조기선
부회장 권옥	윤리위원	박병식	윤영위원	김성민	윤영위원	오영준	대표회원	고원석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이준	대표회원	조희곤
부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송재철	윤영위원	김영량	윤영위원	윤신학	대표회원	권상민	대표회원	김창신	대표회원	이기열	대표회원	지명준
감사 이운범	윤리위원	송화중	윤영위원	김종원	윤영위원	이종규	대표회원	국종훈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진동선
원로회원 임영환	윤리위원	이공희	윤영위원	나춘균	윤영위원	이재신	대표회원	김대수	대표회원	김현주	대표회원	이우재	대표회원	최경호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이동근	윤영위원	라규환	윤영위원	이진일	대표회원	김만숙	대표회원	김한일	대표회원	이장규	대표회원	최용환
원로회원 이동규	윤리위원	이승기	윤영위원	문길천	윤영위원	조금형	대표회원	김문숙	대표회원	박예경	대표회원	이현국	대표회원	한웅진
원로회원 김성권	윤리위원	이정기	윤영위원	박종환	윤영위원	채이석	대표회원	김미경	대표회원	복남근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한지훈
	윤리위원	조병두	윤영위원	배문식	윤영위원	최도성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소만호	대표회원	안건만	대표회원	황재준
	윤리위원	최산성	윤영위원	배진석	윤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성훈	대표회원	안석문	대표회원	장기현	대표회원	황재영
	윤리위원	최현호	윤영위원		윤영위원		대표회원	김양욱	대표회원	안광환	대표회원	장용준	대표회원	

(이준,성명기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